

6/ 언더클래스의 출현과 새로운 계급사회*

하시모토 겐지



미나토구 모토아자부의 저층 주택과 롯폰기의 빌딩들

하시모토 겐지(橋本健二) 1988년 도쿄대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 시즈오카대학 교원, 무사시대 학 교원을 거쳐 현재 와세다대학 인간과학학술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은 사회학으로 계급 이론을 토대로 현대 일본 사회의 격차 구조, 전후 일본 사회의 형성 과정 및 변동 과정에 대한 계량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現代貧乏物語』(2016), 『‘格差’と‘階級’の戦後史』(2020), 『新・日本の階級社会』(2018) 등이 있으며 『階級都市』(2011)는 『계급도시: 격차가 거리를 침식한다』(2019)로 번역 출간되었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 S1A6A3A02102886).

<https://doi.org/10.29154/ILBI.2022.26.158>

1. 아시아·태평양 전쟁 이후 일본의 경제 격차

1) '1억총중류'(一億總中流)의 붕괴와 '격차사회'의 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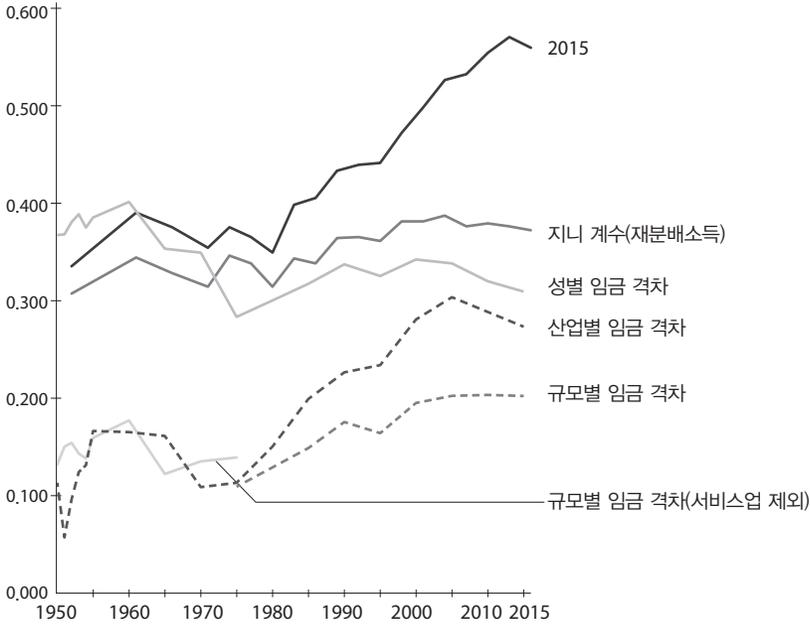
1970년대 말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종종 일본은 경제 격차가 작고 대다수 사람들이 스스로를 '중류층'이라 생각하는 '1억총중류' 사회로 불렸다. 경제 관청 소속 관료들로부터 비롯된 이 주장은 매스컴과 일부 사회과학자들의 인기를 얻으며, 1980년대 중반까지는 일종의 상식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일본의 경제 격차는 급속히 확대되기 시작했다. '1억총중류'를 믿는 상당수 일본인들은 어느 시기까지 이 같은 변화를 정면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자 격차 확대는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임이 명백해졌다. 이렇게 2005년 유행어가 된 '격차사회'라는 말은 단기간에 퍼져 나가, 2010년 무렵에는 자주 쓰이는 일상용어가 되었다. 일본은 경제적 격차가 큰 사회라는 인식은, 오늘날에는 대다수 일본인들 사이에 자리 잡았다.

몇 해 사이 격차의 확대는 완화되었으나 이는 격차가 더 이상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며, 오히려 높은 수준의 격차가 정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임금에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여전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다 빈곤층은 방대한 규모로 불어나고 있다. 이처럼 일본 사회는 약 50년 사이 '1억총중류' 사회에서 '격차사회'로 극적 전환을 맞이한 것이다.

우선 당초소득(当初所得) 지니계수는 1952년(0.335)에서 1961년(0.390)까지 명확히 상승했으나 그 후 하강 추세로 돌아섰으며, 1980년(0.349)에 최저치에 달했다. 이후 30년간 급격한 상승을 계속하다 2013년(0.570)에 절정에 다다른 듯 보이며, 2016년(0.559)에는 소폭 감소했다. 재분배소득(再分配所得) 지니계수도 거의 같은 경향을 보이거나 변동 폭이 약간 작고, 당초소득보다 조금 이르게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 규모별, 산업별, 성별에 따른 3가지 임금격차지수도 매우 유사한



〈그림 1〉 전후 일본 경제 격차의 추이

출처: 후생노동성, 「매월 근로 통계조사」(毎月勤労統計調査).

(※) 지니계수는 후생노동성 「소득재분배조사」(所得再分配調査)를 참고. 당초소득(当初所得)은 임금, 사업 소득, 재산 수입 등의 합계. 재분배소득(再分配所得)은 당초 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장보험료를 제하고 사회보장 수혜금을 더한 것.

규모별 임금 격차는 500명 이상과 30~99명의 차이로, 각 집단의 월 급여 총액의 차를 합으로 나눈 지수. 전 시기에 걸쳐 1000명 이상 규모의 임금이 30~99명 규모의 임금을 상회한다. 1970년까지는 서비스업을 제외. 1971~1982년은 제조업에 국한. 대상은 상용 근로자.

산업별 임금 격차는 도소매업과 금융 보험업의 차이로, 각 집단의 월 급여 총액의 차를 합으로 나눈 지수. 마찬가지로 전 시기에 걸쳐 금융 보험업의 임금이 도소매업을 상회하며, 1970년 이후 전 사업 가운데 금융 보험업이 최고치. 도소매업이 최저치를 유지.

성별 임금 격차는 각 집단의 월 급여 총액의 연평균 차를 합으로 나눈 지수. 전 시기에 걸쳐 남성의 임금이 여성을 상회한다. 대상은 30명 이상의 상용 근로자.

경향을 보인다. 1960년까지 확대된 다음 축소 국면에 접어들어 1975년에서 1980년 사이 최저점을 찍고, 이후에는 확대 추세로 돌아서 2000년대에 최고치에 이른다. 특히 산업별 임금 격차는 1975년(0.113)에서 2005년(0.303)까지 급격히 확대되는데, 이것이 지니 계수 상승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1980년 이후 남녀 간 임금 격차는 1960년의 최고치를 밀돌고 있으나, 이는 1950년대부터 1960년 무렵에 이르기까지 임금 격차가 너무도 컸던 까닭이다. 임금 격차는 1965년부터 1975년에 걸쳐 일단 축소되기는 하지만,

1975년에서부터 2000년경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사실은 일본의 젠더 갭(gender gap)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 준다.

2) 고도경제성장기 이전의 경제 격차

다음으로 고도경제성장기 이전, 고도경제성장기, 고도경제성장기 이후, 세 시기로 나누어 경제 격차의 동향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¹

아시아·태평양 전쟁 시기 일본은 아시아 제국(諸國)을 군사적으로 지배해 식민지화했으며, 그 국민들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 한편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들은 전국 도시에 쏟아진 미군의 공중 폭격,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 오키나와 지상전 등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전쟁 중에 소실된 건축물, 산업 설비, 선박, 가구 및 가재 등 국부(國富)는 전체 규모의 약 1/4에 달했다. 패전 후 해외에서 일본으로 귀환한 이들은 군인·군무원 약 311만 명, 일본군 지배하에 경제 활동을 영위하던 민간인 319만 명으로 총 630만 명에 이르렀으며 그중 대다수는 실업자가 되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일본인 또한 빈곤해졌으며 중일전쟁 개전 직전인 1934~1936년의 평균을 100이라 볼 때, 1947년의 제조업 임금은 불과 30, 도시 지역 소비 수준은 50까지 저하했다. 이것이 1950년대 초 경제 격차를 축소시킨 한 가지 원인이다.

일본을 지배하에 둔 미국은 점령 초기 단계에는 일본을 제국주의 전쟁으로 나아가게 한 원인으로 여겨진 경제·사회 구조의 쇠신을 주된 목표로 삼아, 일본 정부에 다양한 개혁을 실시하게 했다. 그중에서도 농지개혁과 노동개혁은 격차를 크게 축소시켰다.

전전기(戰前期) 일본 농촌에서는 광대한 농지를 소유한 지주가 소작농이라 불리는, 토지를 갖지 못한 빈농에게 농지를 경작케 하고 고액의 지대를 징수하는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농지개혁은 지주가 소유한 소작지 중

1 아래와 같은 전후 일본의 격차 동향에 대해서는 橋本健二, 『'格差'와 '階級'의戰後史』, 河出書房新社, 2020을 참조.

약 1헥타르를 초과하는 부분을 강제로 매수, 소작농에게 매도하는 것이었다. 전후 인플레이션의 결과 매도 가격은 저렴한 값이었으므로 소작농들은 용이하게 농지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소작농은 전쟁 이전 일본의 빈곤층을 이루는 주요한 부분이었으나, 농지개혁으로 인해 농촌의 경제 격차는 대폭 축소되었으며 빈곤층은 감소했다.

노동개혁의 중심은 노동조합 결성과 단체교섭 장려였으며, 그 결과 노동조합은 단기간에 수백만에 이르는 노동자들을 조직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전전기 일본에서는 대학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화이트칼라 노동자와 소학교를 졸업한 블루칼라 노동자 사이에 차별적 대우와 함께 극심한 임금 격차가 존재했다. 그러나 노동조합 운동으로 인해 차별 대우는 대체로 폐지되고 임금 격차는 대폭 감소했으며, 이것이 경제 격차 축소에 공헌했다. 다만 임금 격차 축소는 주로 정규 고용 남성 노동자들 내부에서 이루어졌으며, 성별 간 임금 격차나 정규·비정규 노동자 간 격차는 여전히 컸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전쟁에 따른 부의 파괴로 축소된 경제적 격차는, 농지개혁과 노동개혁에 의해 거듭 줄어들게 되었다. 이 때문에 1950년대 초에는 경제 격차가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다.

그러나 전후 부흥이 궤도에 오르자 격차는 확대 국면으로 돌아섰다. 전후 부흥은 불균등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급속히 부흥을 이룩한 것에 비해 중소기업의 부흥은 더딘 속도로 이루어졌다. 대도시 지역이 급속히 경제 부흥을 달성한 것에 비해, 지방의 경제 부흥은 늦어졌다. 이러한 연유로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경제 격차는 확대된 것이다.

3) 고도경제성장기의 경제 격차

일본은 1950년대 말에 고도경제성장기를 맞았으며 높은 경제성장률은 1973년까지 이어졌다. 실질 GDP 성장률은 1950년대 후반에 이미 6~9%에 달했는데 1960년에는 13.1%를 기록했으며, 1964년 도쿄 올림픽 직후 대기업 도산이 잇따랐던 1965년을 제외하면 1959년부터 1970년까지 매년 8%

를 넘겼다(뒤에 나오는 <그림 2>를 참조). 1959년부터 1970년에 이르기까지 실질 GDP 성장률은 단순 평균으로 10.4%에 달했다. 같은 기간 명목 GDP는 13조 7648억 엔에서 76조 5392억 엔으로 5.56배 증가했으며, 실질 GDP 역시 3.10배 증가했다.

1960년대 들어 고도경제성장이 본격화되자 경제 격차는 축소되기 시작했다. 1961년 0.390이었던 당초소득 지니계수는 1966년에는 0.375, 1971년에는 0.354까지 떨어졌다. 임금 격차를 살펴보면,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는 1960년에서 1965년 사이 현저히 줄었으며, 1970년에는 근소하게 확대되었으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별 임금 격차는 1960년에서 1965년 사이 조금 축소되는 데 그쳤으나 1970년에는 현저히 줄었다. 또 성별 간 임금 격차는 1960년부터 1965년에 이르기까지 대폭 축소되었으며, 1970년에도 거의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 같은 경제 격차의 축소는 고도경제성장에 수반된 노동력 부족이 야기한 결과였다. 1950년대 중반까지는 구인 수가 구직자 수를 크게 밀돌았으나 고도성장이 시작되며 차이를 좁혔고, 1962년에는 역전했다. 특히 신규 졸업자에 대한 구인이 대폭 증가했는데, 그중에서도 블루칼라 노동자와 서비스직 노동자를 찾는 중졸자 및 고졸자 구인은 비약적으로 증대했다. 기업은 신규 졸업자를 획득하기 위해 고졸자와 중졸자의 초임(初賃)을 크게 인상했으므로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축소되었다. 또 기업은 이러한 초임 상승과 더불어 이미 일하고 있는 비교적 젊은 연령층의 임금을 인상했으므로, 연령에 따른 임금 격차도 축소되었다. 그때까지 고용 기회가 제한되었던 여성 채용 역시 증가했으며, 그 임금도 어느 정도 상승했다.

특히 노동 조건이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 임금을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었는데, 고도경제성장은 이러한 임금 인상을 가능하게 했다. 몇몇 산업 및 직종에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임금이 높은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까지 했다. 이렇게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도 축소되었다. 이러한 경제 격차 축소는 사람들의 소득을 전체적으로 향상시켜 소비를 진작했으며, 이것이 한층 활발한 경제성장이 가능케 한 요인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에는 여러 대가도 따랐다. 교통사고 사건과 사망자 수는 1955년에는 9만 3,981건, 6,379명이었던 것이 고도경제성장과 함께 급증해, 1970년에는 71만 8,080건, 1만 6,765명에 달했으며 1960년대 후반에는 ‘교통 전쟁’이라는 말까지 쓰이게 되었다. 제조업의 급속한 확대는 주변 지역의 환경파괴를 초래하기도 했다. 공장에서 배출된 폐수나 가스에 함유된 유해물질로 인해 많은 이들이 건강상의 피해를 입었으며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 그중에서도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 시라누이해(不知火海) 연안에서 짓소주식회사(チッソ株式会社, 이하 ‘짓소’)가 무처리 상태로 배출한 폐수에 포함된 메틸수은으로 인해 발생한 미나마타병(水俣病)은 피해의 심각성과 많은 환자·사망자 수로 국제적 주목의 대상이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짓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덧붙여 두고자 한다. 기실 ‘짓소’[당시 회사명 일본질소비료(日本窒素肥料)]는 거대 콘체른을 형성한, 전전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였으며 한일합병 이후 한반도에 진출해 사업을 전개한 중심 기업이기도 했다. ‘짓소’는 1920년대부터 함경남도를 중심으로 다수의 비료공장과 화학공장을 건설해 조업을 개시했는데,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가 끝날 때까지 전 시기에 걸쳐 대량의 유해물질을 배출해 심각한 공해를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유해물질 배출로 미나마타병을 초래했으면서도 책임에 대한 인정 없이 피해자에게 불성실한 태도를 견지한, ‘약자에게 지배를, 냄새나는 것에 뚜껑을’이라는 ‘짓소’의 기업 체질은 식민지배하 한반도에서의 활동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는 지적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²

4) 고도경제성장기 이후의 경제 격차

1973년 제1차 오일쇼크를 전기로 고도경제성장기는 종언을 고했다. 실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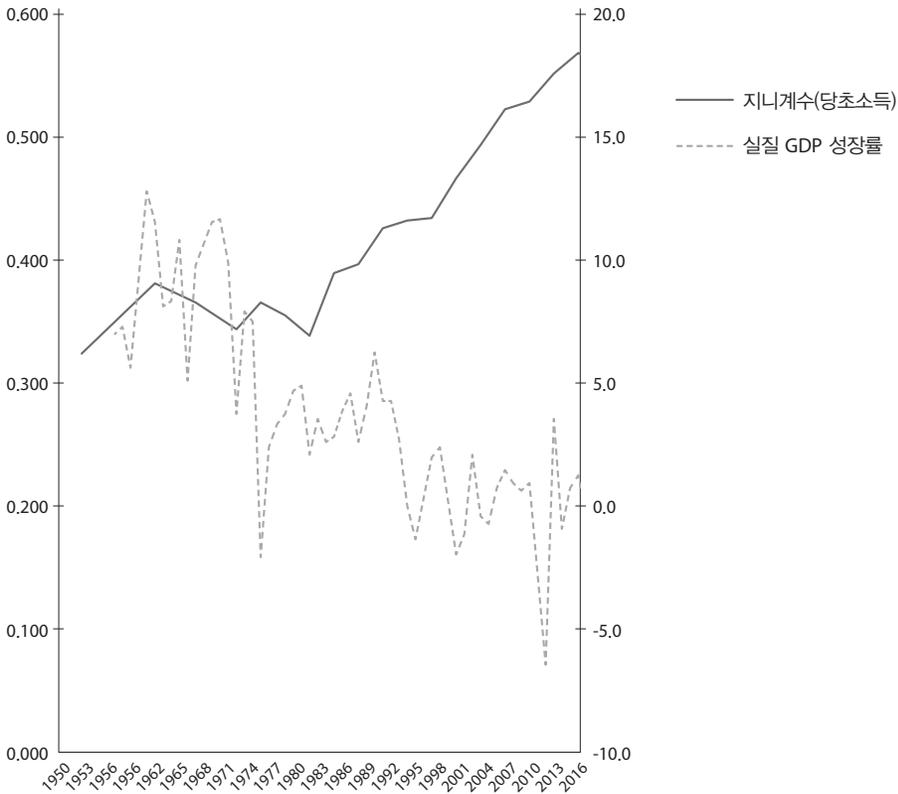
2 加藤圭木, 「朝鮮植民地支配と公害: 戦時期の黄海島鳳山郡を中心に」, 『史海』 61卷, 2014, 71~82쪽.

GDP 성장률은 저조해졌으며, 1974년에 -1.2%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 2~5% 사이에서 움직이게 되었다. 고도경제성장의 종언은 경제 격차를 축소시킨 가장 큰 요인이었던 노동력 수요를 감소시켰으므로 규모, 산업, 성별, 학력 등에 따른 임금 격차는 더 이상 줄어들지 않게 되었으며, 1980년 무렵을 경계로 확대 추세로 돌아서게 되었다.

국제적 경제 환경 역시 변화했다. 1985년 뉴욕 플라자 호텔에 모인 선진 5개국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달러 강세를 시정하기 위한 협조 개입에 합의했다. 플라자 합의 직전에 1달러=252엔이었던 엔 시세는 직후부터 고등(高騰)하기 시작해, 연말에는 200엔, 1986년 말에는 160엔, 1987년 말에는 122엔에 이르렀다. 엔고(円高)를 배경으로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값싼 제품이 대량으로 유입되었는데 대개는 노동집약형 산업으로 생산된 제품이었기에 국내 중소기업과의 경쟁에 유리했으며, 이에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은 혹독해졌다. 또한 급격히 진행되는 엔고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에 의존해 온 대기업은 노동력 절감과 비용 삭감으로 나아갔다. 그 결과 생산 거점이 해외로 이전되거나 하청기업에 대한 철저한 단가 인하가 이루어짐으로써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더욱더 악화되어 갔다.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다시금 확대된다.

더욱이 고용 구조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1986년 전후부터 지가와 주가가 급상승하기 시작하며 일본은 버블 경제기에 접어들었다. 경기가 호전되며 고용은 확대되었지만 문제는 그 내용이었다. 오일쇼크 이후 고용은 저조했으며 1978년에는 유효 구인배율이 파트타임 노동자는 1.00배, 파트타임 외 일반 노동자는 0.55배까지 떨어졌다. 그 후 구인배율은 점차 회복되었는데, 일반 노동자의 구인배율이 근소한 회복에 그친 데 반해 파트타임 구인배율은 급상승해 1980년에는 1.35배(일반 노동자 0.73배, 이후 괄호 안 수치는 일반 노동자 구인배율), 1985년에는 1.50배(0.64배), 1989년에는 3.93배(1.11배)에 달했다.³ 고도경제성장기와는 달리 기업들은 주로 비정규 고용을 통해 노동

3 厚生労働省, 『職業安定業務統計』.



〈그림 2〉 지니 계수와 실질 GDP 성장률 추이

출처: 「국민경제계산(國民經濟計算)」.

주: 지니 계수는 「소득재분배조사」, 실질 GDP 성장률은 「경제재정백서」(經濟財政百書, 2020)를 참고.

력을 조달한 것이다. 그 결과 1985년에서 1990년 사이, 정규 노동자 증가가 145만 명에 그친 데 비해 비정규 고용자는 226만 명 증가했다. 이 단계에서는 비정규 고용자 대부분이 여성이었으나 이후 남성 비정규 고용자도 착실히 늘어 갔다. 비정규 고용자는 2015년에 이르는 25년간, 연평균 약 44만 명의 속도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으며 1995년에는 1,000만 명, 2014년에는 2,000만 명을 돌파했다.⁴ 저임금에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 노동자의 급증은 경제 격차의 확대를 가속화했다.

4 厚生労働省, 『労働力調査』.

〈그림 2〉는 〈그림 1〉에서 제시한 당초소득 지니 계수와 실질 GDP 성장률의 추이를 겹쳐 놓은 그래프다.⁵ 두 지표가 밀접히 연관된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경제성장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던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에 걸쳐 지니계수는 계속 감소하는데, 오일쇼크 전후로 일시적인 상승을 보이지만 이내 다시 떨어져 1980년에는 0.349에 이른다. 그리고 경제성장률이 대폭 감소한 1974년으로부터 9년이 지난 1983년, 지니계수는 0.398로 치솟는다. 이후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인 침체에 빠진 한편, 지니계수는 급속한 상승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 경제와 경제 격차는 명백히 고도경제성장기와는 다른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2010년대에 이르러 경제 격차의 확대는 속도를 늦추고 근소한 저하 경향을 띠게 되었으나, 1970년대에 비하면 아직도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 구조

1) 계급론적 접근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일본의 경제 격차는 1950년부터 1960년 무렵까지 확대되었으나 고도경제성장이 본격화된 1960년대 전반부터 축소되기 시작해, 오일쇼크에 의해 고도경제성장이 종언을 고한 197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 후 1980년 즈음부터 다시 확대되기 시작, 그 후 30년이 넘는 시기에 걸쳐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 격차 문제는 지니계수나 임금 격차와 같은 양적 지표만으로는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 격차는 질적 차이를 동반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질적 차이를 포착하기 위한 이론과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 채택한 것은 계급론적 접근이다.

계급론적 접근을 처음 확립한 것은 칼 마르크스다. 그는 근대 자본주의

⁵ 실질 GDP 성장률은 内閣府, 『經濟財政白書』에서 인용. 숫자는 연도가 아닌 역년에 따른 것을 채택.

사회의 계급 구조를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으로 구성되는 2계급 구조로 파악하고, 전근대 사회부터 존재해 온 자영 상공업자와 농민 등은 자본가 계급과의 경쟁에서 패한 결과 노동자 계급으로 전락해 간다고 생각했다. 단 그의 계급 이론은 복잡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주저인 『자본론』에서는 단편적인 언급에 그치기는 했으나 자영 상공업자가 장기적으로 잔존하는 경우, 또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사이에서 양자를 매개하는 중간적 노동자가 출현하는 경우 역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논점들은 실제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는 데에 중요한 것으로서, 니코스 폴랑저스⁶, 에릭 올린 라이트⁷, 존 로머⁸ 등 후대 이론가들에 의해 계승되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 구조에 대한 그들의 이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4계급 도식을 구성할 수 있다.⁹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근대 이후 성립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과 봉건적 생산 양식의 잔존 형태인 단순 상품 생산이라는 두 가지 생산 양식이 공존 및 접합하고 있다. 단순 상품 생산은 봉건 영주 아래서 생산 활동을 수행하고 착취당했던 상공 자영업자와 농민들이, 봉건제 해체로 인해 독립 자영 생산자가 됨으로써 형성된 경제 섹터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가장 큰 특징은 생산 수단을 일부 사람들이 집중 소유한다는 점이다. 생산 수단을 소유하는 이들을 자본가 계급, 소유하지 않은 이들을 노동자 계급이라 부른다. 단 이때의 소유란 법률상의 소유권을 가진 상태와 생산 수단을 활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태를 포함하는, 광의의 소유를 말한다. 노동자 계급은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상태 그대로는 노동이, 또한 생활이 불가능하다. 그에 비해 자본가 계급은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다고는 하나 자신의 힘만으로

6 N. Poulantzas, *Les Classes Sociales dans le Capitalisme Aujourd'hui*, Seuil, 1974, D. Fernbach(tr.), *Classes in Contemporary Capitalism*, Verso, 1978.

7 E. O. Wright, *Class, Crisis and the State*, New Left Books, 1978; E. O. Wright, *Class Structure and Income Determination*, Academic Press, 1979.

8 John E. Roemer, *A General Theory of Exploitation and Cl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9 이 4계급 도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K. Hashimoto, "Transformation of the Class Structure in Contemporary Japan," *The Japanese Political Economy*(<https://doi.org/10.1080/2329194X.2021.1943685>) (최종검색일: 2022. 2. 9.)를 참조.

는 대량의 생산 수단을 활용할 수 없다. 그때 양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교환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노동자 계급은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 계급에게 제공하고, 자본가 계급은 그 대신 임금을 지불한다. 그러나 이때 노동자 계급이 지급받는 임금의 크기는 노동을 통해 생산된 가치 전부가 아닌 그 일부이며, 그 차액(이를 잉여가치라 부른다)이 자본가 계급의 이익이 된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란 노동력이 상품으로서 매매되는 경제 구조이며, 이 매매를 통해 노동자 계급은 자본가 계급에게 잉여가치를 착취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생산 활동의 규모가 커지면 자본가 계급은 자신의 손으로 생산 과정을 관리하거나 노동자 계급을 감독하기 곤란해지므로, 이러한 일들은 다른 이들에게 맡겨지게 된다. 이렇게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중간에 위치하는 중간계급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의해 새롭게 등장한 계급이므로 신(新) 중간계급이라 이른다. 이에 비해 단순 상품 생산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자영 생산 활동을 영위하는 이들은 생산 수단의 소유자라는 자본가 계급의 성질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계급의 성질을 모두 갖추었다는 의미에서 마찬가지로 중간계급이라 말할 수 있으나, 자본주의의 성립 이전부터 존재해 온 오랜 계급이라는 점에서 구(舊) 중간계급이라 부른다.

이상과 같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위치하는 자본가 계급, 신 중간계급, 노동자 계급, 단순 상품 생산에 위치하는 구 중간계급이라는 네 계급으로 구성된다. 이것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계급 구조다.

그러나 노동자 계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덧붙여 둘 필요가 있다. 노동자 계급은 자본주의 사회의 하층 계급이자 최대 피착취 계급인데, 발달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노동자 계급에게 생계를 유지하고 장기간에 걸쳐 노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가족을 형성하고 자녀를 낳고 길러 차세대 노동자 계급을 재생산할 수 있을 만한 임금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경제학적 용어로 바꿔 말하자면, 차세대의 노동력까지 포함한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즉 노동력의 가치에 상응하는 임금

이 지불될 필요가 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 사회는 차세대 노동자 계급을 확보할 수 없게 됨으로써 존속의 위기에 내몰리게 되는 까닭이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 생계를 유지하고 차세대 노동자 계급을 재생산할 만큼의 임금을 얻지 못하는 비정규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정규 고용된 노동자 계급과 구별해 프레카리아트(precariat), 언더클래스 등으로 불리는데, 여기서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쉬운 ‘언더클래스’라는 말로 부르려고 한다. 언더클래스는 노동자 계급이면서 노동력의 가치를 크게 밀도는 임금 밖에 지급받지 못하는 최하층 노동자를 말한다. 이렇게 노동자 계급은 노동력의 가치와 동등한 임금을 받는 정규 노동자 계급과, 그렇지 못한 언더클래스라는 두 개 계층으로 위계가 이분된다. 노동자 계급은 실질적으로 두 계급으로 분열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어질 분석에서는 필요에 따라 4계급 도식에 근거한 분석과 함께, 정규 노동자 계급과 언더클래스를 구별한 5계급 도식에 따른 분석도 제시하고자 한다.

2) 계급 개념의 조작화

앞서 설명한 계급 도식을 실증적 연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서 얻을 수 있는 변수들에 각 계급을 대응시키기 위한 조작화가 필요하다. 조작화는 다음과 같은 3단계 절차를 통해 실행한다(〈표 1〉).

- ① 우선 업무상 지위에 주목해 유직자(有職者) 전체를 경영자·임원·자영업자·가족 종사자(이하 경영자·자영업자 등)와 피고용자로 나눈다. 경영자·자영업자 등은 자본가 계급 또는 구 중간계급, 피고용자는 신 중간계급 또는 노동자 계급으로 간주할 수 있다.
- ② 경영자·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종업원 규모가 5인 이상이면 자본가 계급, 5인 미만이면 구 중간계급으로 분류한다.
- ③ 피고용자에 대해서는 직종에 주목해 전문직, 관리직, 남성 사무직(단

〈표 1〉 계급 카테고리의 구성

	정규 고용자	비정규 고용자	경영자·임원·자영업자·가족 종사자
전문 관리	신 중간계급		종업원 규모 5인 이상은 자본가 계급 종업원 규모 5인 미만은 구 중간계급
사무	남성은 신 중간계급 여성은 노동자 계급	노동자 계급	
기타	노동자 계급		

비정규 고용을 제외)을 신 중간계급, 기타를 노동자 계급으로 분류한다.

자본가 계급과 구 중간계급의 경계를 종업원 규모 5인으로 설정한 것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다수의 통계 조사가 조사 대상을 기업 규모 5인 이상으로 삼는 등 일반적인 ‘기업’의 통념이 5인 이상의 사업체를 가리키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에서도 이를 경계로 경영자·자영업자의 수입 및 생활 실태가 크게 변화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⁰

또한 남성 사무직을 신 중간계급, 여성 사무직을 노동자 계급으로 규정한 것은 일본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여성 사무직은 대다수가 단순 사무직이기에 신 중간계급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여성 종합직이 증가함에 따라 젊은 여성 사무직 중에는 중간 계급적 성격이 강한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추출한 표본에서 얻은 데이터를 분석할 때에는 여전히 이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업무상 지위 분류에 포함된 내직(內職)이라는 카테고리는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로 분류되지만, 내직자의 노동 실태는 비정규 노동자와 크

10 2015년 SSM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경영자·자영업자 등과 피고용자의 연 수입은 기업 규모 2~4인에서는 각각 297만 2,000엔, 207만 1,000엔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5~9인이 되면 422만 4,000엔, 228만 9,000엔으로 2배가량 차이를 보였으며, 299인 규모까지는 규모가 커질수록 차이 역시 커졌다. 이는 경영자의 수입에서 잉여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이 5인 규모를 기점으로 크게 변화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되기에 여기서는 비정규 고용으로 간주한다.

5계급 도식을 사용한 경우에는 노동자 계급을 다시 3개의 그룹으로 나눈다. 3개 그룹이란 정규 고용 노동자 계급, 배우자가 있는 비정규 고용 여성 노동자 계급(파트타임어 주부), 파트타임어 주부를 제외한 비정규 고용 노동자 계급이며, 그중 마지막 그룹이 언더클래스에 해당한다.

3. 데이터

이 연구는 관청 통계 하나와 두 종류의 사회 조사 데이터, 즉 취업 구조 기본 조사(就業構造基本調査), SSM 조사(SSM調査) 데이터, 수도권 주민 조사(首都圏住民調査) 데이터를 채택한다.

취업 구조 기본 조사는 총무성(総務省) 통계국이 시행하는 대규모 조사다. 일본의 가장 기본적인 인구 통계는 국세 조사(国勢調査)이나,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방대한 규모의 조사이기에 설문 수나 종류가 한정되어 있다. 계급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 비정규 노동자의 혼인 상태 등 항목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나 국세 조사 통계표에서는 이러한 항목들을 구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관청 통계로서 취업 구조 기본 조사 집계표를 택했다. 조사 규모는 국세 조사의 약 1/100에 해당하지만, 취업, 기업 규모, 수입, 혼인 상태 등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SSM 조사의 정식 명칭은 '사회 계층과 사회 이동 전국 조사'이며, 계급·계층 연구 전문 사회학자 연구 그룹이 1955년부터 10년마다 시행하고 있다. 이 조사는 계급·계층 간 이동 실태를 밝히기 위해 부모의 직업과 학력을 포함한 출신 가정 관련 정보를 자세히 묻는 것 외에도, 이제까지 거친 모든 직업에 대해 묻는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2015년 조사는 과학연구비 특별추진 연구사업(과제번호 25000001)에 의한 것으로, 조사 대상은 전국의 20~79세, 유효 응답 수는 7,817명이었다. 2015년 SSM 조사 데이터 관리위

원회에서 데이터 사용을 허가받았다. 사용한 데이터는 2017년 2월 27일 판(버전 070)이다.¹¹

수도권 주민 조사는 2016년에 실시된 조사로, 격차와 빈곤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가계 상태, 건강 상태 및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에 관한 설문을 다수 포함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조사 대상은 도심 50km 권내에 거주하는 20~69세, 유효 응답 수는 2,351명이었으며, 과학연구비 보조금(기반연구A 과제번호 15H01970)의 지원으로 실시되었다.

4. 계급 구성의 변화

〈표 2〉는 취업 구조 기본 조사에서 공표된 집계표와 함께 1992년부터 2017년까지 각 계급의 인원수 및 전체에서 차지하는 구성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노동자 계급에 대해서는 정규 노동자 계급, 언더클래스, 파트타임 주부를 구별해 세목별 수치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이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25년간의 가장 큰 변화는 자본가 계급과 구 중계급의 축소, 신 중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확대다. 자본가 계급은 구성비를 볼 때 6.2%에서 3.5%로 줄었고, 인원 수는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또 구 중계급은 구성비로는 19.0%에서 9.9%로 축소되었으며, 인구 수는 약 절반으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신 중계급과 노동자 계급은 모두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약소한 자본가 계급과 구 중계급이 분해되고 피고용자가 증가하는, 일본 경제 구조의 자본주의적 계급 구조로서의 단순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피고용자 내부 구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주목된다. 1992년에

11 1955년부터 2005년까지의 SSM 조사 데이터는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 부속 사회조사·데이터 아카이브 연구센터(<https://csrda.iss.u-tokyo.ac.jp>)에 신청하면 연구 목적 이용이 가능하다. 2015년 SSM 데이터도 가까운 시일에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표 2〉 현대 일본 계급 구성의 추이

	1992	1997	2002	2007	2012	2017
자본가 계급	396.5 (6.2%)	371.6 (5.7%)	334.8 (5.3%)	313.2 (4.9%)	254.4 (4.1%)	219.4 (3.5%)
신 중간계급	1,170.7 (18.3%)	1,232.8 (18.9%)	1,220.5 (19.4%)	1,267.2 (19.8%)	1,285.5 (20.6%)	1,449.6 (22.8%)
노동자 계급	3,628.7 (56.6%)	3,782.6 (58.1%)	3,730.5 (59.2%)	3,903.5 (60.9%)	3,905.9 (62.5%)	3,933.4 (61.9%)
정규 노동자 계급	2,636.8 (41.1%)	2,650.0 (40.7%)	2,322.3 (36.8%)	2,314.3 (36.1%)	2,192.5 (35.1%)	2,194.1 (34.5%)
언더클래스	392.5 (6.1%)	493.1 (7.6%)	709.8 (11.3%)	846.7 (13.2%)	928.7 (14.9%)	913.4 (14.4%)
파트타임어 주부	599.4 (9.3%)	639.4 (9.8%)	698.3 (11.1%)	742.5 (11.6%)	784.8 (12.6%)	825.9 (13.0%)
구 중간계급	1,215.0 (19.0%)	1,126.4 (17.3%)	1,020.1 (16.2%)	927.6 (14.5%)	806.0 (12.9%)	629.7 (9.9%)
합계	6,410.9 (100.0%)	6,513.5 (100.0%)	6,305.9 (100.0%)	6,411.5 (100.0%)	6,251.8 (100.0%)	6,353.7 (100.0%)

출처: 취업 구조 기본 조사를 참고하여 작성.

서 2012년까지 신 중간계급은 114만 9,000명 증가, 노동자 계급은 277만 3,000명 증가함으로써, 노동자 계급의 확대가 이 시기 이루어진 변화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신 중간계급이 164만 1,000명 증가하며 구성비가 22.8%까지 상승한 데 비해, 노동자 계급은 27만 4,000명 증가에 그치며 구성비는 62.5%에서 61.9%로 근소하게 저하했다. 이는 2012년까지는 서비스직의 증가를 중심으로 한 프롤레타리아화 경향이 지배적이었던 데에 반해, 근래에 들어 현저해진 전문기술직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노동자 계급의 내부 구성에서는 뚜렷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25년간 정규 노동자 계급이 442만 7,000명이나 감소, 전체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도 41.1%에서 34.5%로 대폭 감소한 데에 비해, 언더클래스는 520만 9,000명, 파트타임어 주부도 226만 5,000명 증가해 노동자 계급은 비정규 고용으로 급속히 전환되었다. 특히 언더클래스의 증가가 현저한데, 그 수는 1992년에는 파트타임어 주부를 대폭 밀돌았으나 2002년에는 역전, 2017년에는 근

소하게 감소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파트타임어 주부를 약 90만 명 상회하며 비정규 노동자 내에서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또 이 시기에 이루어진 구 중간계급의 축소로 언더클래스의 규모는 2012년부터는 구 중간계급을 웃돌게 되었으며, 일본 계급 구조의 주요한 요소 중 하나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파트타임어 주부는 가게를 보조하기 위해 단기간만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인 경우가 많아 그들의 수입이 가게에서 점하는 비율은 낮으며, 그들의 생활수준 및 의식은 남편이 소속된 계급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크다. 이 때문에 파트타임어 주부의 생활과 의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 단위의 분석이 아닌, 남편의 소속 계급을 포함한 세대 단위의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어지는 분석에서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5. 언더클래스의 특징과 내부 구성

1) 언더클래스의 특징

그렇다면 언더클래스는 어떤 이들일까. <표 3>은 그들의 기본 속성을 다른 계급과 비교한 것이다.

여성 비율은 40.2%로 다른 계급(38.4%)과 별반 다르지 않다. 연령은 두드러지게 60세 이상 고연령자에 치우쳐 있으며 60대의 비중은 무려 37.6%에 달한다(타 계급 14.5%). 이는 언더클래스 중에는 정규 노동자로 취직하지 못하고 프리터, 즉 젊은 비정규 노동자가 된 청년이 많다는 일반적인 이미지와는 다른데, 이 점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학력에서는 대졸자(23.1%)가 적고 중졸자가 17.0%로 많다.

직종을 보면 단순노무직(マニユアル職)이 45.4%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며 서비스직도 18.4%로 많다. 직종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2015년 SSM 조사 데이터에서 10명 이상에 해당하는 직종을 열거해 보면 판매원(47명), 총무·기획사무원(20명), 요리사(18인), 식당 종업원(18명), 청소원(15명), 슈퍼마

〈표 3〉 언더클래스의 기본 속성과 경제 상황

		언더클래스	기타
여성 비율		40.2%	38.4%
연령	20대	15.3%	10.9%
	30대	12.7%	19.9%
	40대	12.1%	25.2%
	50대	11.2%	21.9%
	60대	37.6%	14.5%
	70대	10.9%	7.5%
학력	중졸 수준	17.0%	7.3%
	고졸 수준	59.9%	51.1%
	대졸 수준	23.1%	41.6%
직종	전문	0.0%	25.1%
	관리	0.0%	3.8%
	사무	17.6%	19.7%
	판매	12.7%	11.2%
	서비스	18.4%	7.8%
	보안	3.6%	1.0%
	농림어업	2.3%	6.1%
	단순노무	45.4%	25.2%
혼인 상태	미혼	34.1%	20.8%
	배우자 있음	37.5%	71.7%
	이혼·사별	28.4%	7.5%
경제 상황	개인 수입	227万円	422万円
	세대 수입	391万円	723万円
	빈곤율	27.5%	7.2%

출처: 2015년 SSM 조사 데이터에 근거해 산출. 20~79세.

주: '기타'는 자본가 계급, 신 중간계급, 정규 노동자 계급, 구 중간계급의 합계.

켓 등 계산대 담당 캐셔(13명), 창고 관리인·화물 운반 노동자(12명), 영업·판매 사무원(11명), 간병사·도우미(11명), 기타 노무 작업자(10명), 총 10개 직종이었다. 사람들의 생활이나 기업 활동을 저변에서 지원하는 일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혼인 상태를 살펴보면 미혼이 34.1%로 많았으며 이혼 및 사별도 28.4%에 달했다. 개인 수입과 세대 수입 모두 낮았으며 여타 계급의 반을 조금 넘는 정도였다. 빈곤율은 27.5%나 된다.

2) 언더클래스의 내부 구성

기실 언더클래스를 구성하는 내부는 상당히 다양한데, 그중에서도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다. 60세 이상 고령 언더클래스는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가 많아 연금 수입에 비정규 노동 임금을 가산해 생활하고 있으므로 빈곤율은 비교적 낮으며 생활 만족도 역시 그다지 낮지 않다. 특히 남성의 경우 정규 노동자로 장기간 일한 경험을 가진 이들이 많으며, 일정한 금융자산을 소유한 경우도 많다. 언더클래스를 연령과 성별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해 그 특징을 살펴본 것이 <표 4>다.

59세 이하 남성 언더클래스는 주 평균 노동 시간이 38.3시간으로 비교적 긴데, 그 분포를 보면 40시간 이상이 57.1%를 차지한다. 직종은 단순노

<표 4> 언더클래스의 4가지 유형

		59세 이하 남성	59세 이하 여성	60세 이상 남성	60세 이상 여성
언더클래스 내 구성비		23.1%	28.4%	36.7%	11.8%
주 평균 노동 시간(시간)		38.3	34.6	31.0	24.2
직종	사무	9.2%	24.6%	17.4%	17.9%
	판매	11.8%	23.5%	7.4%	5.1%
	서비스	16.4%	25.7%	7.0%	39.7%
	보안	3.3%	0.5%	7.4%	0.0%
	농림어업	1.3%	0.5%	4.5%	1.3%
	단순노무	57.9%	25.1%	56.2%	35.9%
혼인 상태	미혼	66.4%	56.1%	5.0%	9.0%
	배우자 있음	25.7%	—	86.0%	—
	이혼·사별	7.9%	43.9%	9.1%	91.0%
경제 상황	개인 수입(만 엔)	213	164	293	193
	세대 수입(만 엔)	384	303	459	312
	빈곤율	28.6%	48.5%	17.1%	24.0%
	금융 자산 미보유 세대 비율	42.5%	41.7%	17.1%	30.6%
	연금 수급률	0.7%	6.6%	77.3%	85.3%
일의 내용에 만족		18.4%	32.8%	42.3%	49.4%
일에 따른 수입에 만족		5.9%	10.2%	20.9%	31.2%
생활에 만족		13.8%	22.5%	30.2%	32.1%

출처: 2015년 SSM 조사 데이터에 근거해 산출. 20~79세.

주: '일의 내용에 만족', '일에 따른 수입에 만족', '생활에 만족'은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

무직이 거의 6할에 달하고, 서비스직과 판매직이 뒤를 잇는다. 두드러지는 특징은 미혼율이 66.4%로 매우 높다는 점인데 반수 이상이 50세까지 결혼 경험이 없는, 이른바 ‘생애미혼자’인 것으로 보인다. 개인 수입은 213만 엔으로 적으며, 세대 수입도 384만 엔에 그친다. 빈곤율은 28.6%에 달하며 예금 및 저금·주식 등의 금융자산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세대 비율은 42.5%에 이른다. 일의 내용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18.4%로 낮았으며 일에 따른 수입에 만족하는 사람은 불과 5.9%,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도 13.8%에 지나지 않는다. 실태와 의식 모두에서 일본인 남성의 최하층을 이루는 이들이라 할 수 있다.

59세 이하 여성 언더클래스는 주 평균 노동 시간이 34.6시간으로 약간 짧지만, 그럼에도 45.9%는 4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 직종으로는 사무직·판매직·서비스직·단순노무직이 거의 1/4씩 차지한다. 미혼자가 56.1%로 많으나 이혼 및 사별을 겪은 경우도 43.9%에 달한다. 포에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40.1%가 자녀와 동거하고 있으며 싱글 맘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이 그룹의 가장 큰 특징이다. 보다 상세히 분석하자면 이혼 및 사별 경험이 있는 언더클래스 중에는 학교를 졸업한 후 정규 고용자로 취직했으나 결혼과 출산을 계기로 퇴직, 이후에 남편과 이혼 혹은 사별함으로써 비정규 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한 이들이 많다. 즉 결혼과 출산을 겪은 후에도 정규 고용으로 계속 일하기는 어렵다는, 일본 여성 노동자의 실정이 그들을 언더클래스의 길로 이끈 것이다. 개인 수입은 164만 엔으로 현저히 낮으며 세대 수입도 303만 엔에 불과하다. 빈곤율은 무려 48.5%에 이른다. 경제적으로 가장 괴로운 것은 이 그룹이다. 단 업무 내용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32.8%,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22.5%로 둘 다 59세 이하 남성의 2배 가까운 수치다.

이에 비해 60세 이상 언더클래스는 남녀 모두 8할 정도가 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한 개인 수입은 남성이 293만 엔, 여성이 193만 엔으로 59세 이하에 비하면 제법 많으며 세대 수입도 좀 더 높다. 빈곤율은 높지는 않으며 생활 만족도도 낮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60세 이상은

전 생애에 걸쳐 하층에 머무르는 언더클래스의 중심부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최하층 계급으로서의 언더클래스의 성격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59세 이하인 사람들인 것이다.

6. 계급 간 격차의 실태

1) 각 계급 프로필

〈표 5〉는 언더클래스를 그 중심부로 보이는 59세 이하로 한정된 후, 5개 계급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현대 일본을 구성하는 각 계급의 프로필을 그려 볼 수 있다.

〈표 5〉 4+1 계급의 특징

	자본가 계급	신 중간계급	정규 노동자	언더클래스	구 중간계급
개인 평균 수입	604만 엔	499만 엔	370만 엔	186만 엔	303만 엔
세대 평균 수입	1,060만 엔	798만 엔	630만 엔	343만 엔	587만 엔
빈곤율	4.2%	2.6%	7.0%	38.7%	17.2%
주 평균 노동 시간	45.1시간	43.4시간	44.5시간	36.3시간	40.6시간
가계 자산 평균액	4,863만 엔	2,353만 엔	1,428만 엔	1,119만 엔	2,917만 엔
금융 자산 평균액	2,312만 엔	946만 엔	572만 엔	536만 엔	1,113만 엔
자산 미보유 세대 비율	3.5%	5.9%	14.5%	31.5%	11.1%
고등 교육 이수 비율	42.3%	61.4%	30.5%	27.7%	27.2%
일의 내용에 만족하는 응답자 비율	47.7%	37.8%	32.3%	26.3%	41.4%
생활에 만족하는 응답자 비율	45.1%	36.3%	35.6%	18.6%	32.5%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	67.9%	64.1%	52.6%	38.4%	53.4%
자민당 지지율	47.4%	27.5%	24.1%	15.3%	35.5%
지지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	35.1%	56.6%	61.3%	67.9%	46.0%
노동조합 가입률	-	28.9%	38.9%	13.8%	-

출처: 2015년 SSM 조사 데이터에 근거해 산출.

주: 대상 연령은 20~79세(언더클래스는 20~59세).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은 자신의 행복도를 10점 만점으로 묻는 설문에 7점 이상이라 답한 응답자 비율. 자본가 계급과 구 중간계급 중에도 노동조합 가입자가 소수 있으나 수치는 생략.

(1) 자본가 계급

평균 개인 연 수입은 604만 엔이다. 자본가 계급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에 비추어 볼 때 의외로 낮은 수치이나, 이는 수입이 낮은 여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까닭이다. 자본가 계급 여성의 평균 연 수입은 296만 엔에 불과하며, 그중 대부분은 남편 역시 마찬가지로 자본가 계급이다. 일본의 대다수 영세 기업은 가족 경영 체제인데 남편이 주된 경영을 맡고, 아내는 명목상 임원이지만 아주 적은 보수를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세대 연 수입은 남성 1,070만 엔, 여성 1,039만 엔으로 큰 차이가 없다. 빈곤율은 4.2%에 불과하다. 주 평균 노동 시간은 45.1시간으로 가장 길지만 성별에 따라 구분해 보면 남성의 노동 시간이 49.0시간에 이르는 데 비해, 여성은 37.4시간에 그친다. 상술한 바와 같은 가족 경영 기업이 많은 까닭일 것이다.

자산 총액은 4,863만 엔으로 많으며 특히 금융자산이 2,312만 엔으로 여타 계급과 큰 격차를 보인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42.3%로, 신 중간계급 다음으로 높다. 당연히 업무 및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 47.4%가 자민당(自民党)을 지지하고 있으며, 지지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5.1%로 눈에 띄게 낮다(현대 일본의 정당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림 3>에 의거해 후술하기로 한다). 수입과 자산이 모두 많고 경제적으로는 윤택한,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인 계급이라 할 수 있다.

(2) 신 중간계급

개인 연 수입은 499만 엔으로 정규 노동자 계급보다 129만 엔 높다. 평균 세대 수입은 798만 엔으로 빈곤율은 2.6%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과로하다는 이미지가 강한 계급이지만 주 평균 노동 시간은 43.4시간으로, 남성에 한해도 45.8시간, 여성은 39.3시간이기에 일반적인 이미지만큼 지나치지는 않다. 가계 자산 평균액은 2,353만 엔이다. 학력은 두드러지게 높는데, 고등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비율이 61.4%에 달한다.

일과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자본가 계급에 이어 높다. 이처럼 자본가 계급에 뒤이어 풍족하고 흡족한 생활을 영위하는 신 중간계급이지만 정치적

으로는 반드시 보수적이지는 않은데, 자민당 지지율은 27.5%로 높지 않다. 민진당(民進党, 6.0%)과 공산당(共産党, 2.6%) 지지율이 여타 계급에 비해 약간 높으며, 28.9%는 노동조합에도 가입했다.

(3) 정규 노동자 계급

개인의 연 수입은 370만 엔, 세대 수입은 630만 엔으로 두 수치 모두 신 중간계급을 크게 밑돌지만, 구 중간계급보다는 높다는 점이 주목된다. 노동자 계급이라도 정규 고용이 이루어진다면 중간계급에 가까운 풍족함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율은 7.0%로 높지 않으며, 남성 7.0%, 여성 6.9%로 성별에 따른 차이도 없다. 주 노동 시간은 44.5시간이지만 성별로 나누어 볼 때 남성이 46.7시간, 여성이 41.4시간으로 남성의 노동 시간이 더 긴데, 남성 중에서는 4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 57.7%에 달하며, 21.2%는 50시간을 초과한다. 자산 총액은 1,428만 엔으로 적고 자산 대부분이 주택 등 부동산이므로, 자가를 소유하지 않은 이들의 경우 406만 엔에 불과하다. 이 자산액은 구 중간계급을 크게 밑도는데, 근로소득은 어찌되었든 자산 면에서는 중간계급과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일이나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꽤 높아 신 중간계급과 차이가 크지 않다. 자민당 지지율은 24.1%로 언더클래스 다음으로 낮지만 야당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낮고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높으므로, 자민당에 대한 반감이 뚜렷하다고는 볼 수 없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38.9%로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진당 지지율은 4.7%, 공산당 지지율은 1.7%로 모두 전체 평균을 밑돈다. 자본주의 사회의 종속 계급이지만 나름의 소득 수준과 생활 수준을 확보해 대체로 생활에 만족하는 계급이라 할 수 있다.

(4) 언더클래스

개인의 연 수입은 186만 엔으로 극단적으로 낮다. 세대 연 평균 수입은 343만 엔이나 이는 동거 가족이 있는 일부 중소득 세대로 인해 상승된 평균치로, 63.8%는 350만 엔 미만, 나아가 24.1%는 200만 엔 미만이다. 따라

서 빈곤율은 38.7%에 달하며 여성의 경우 48.5%, 이혼·사별한 여성의 경우 63.2%에 이른다. 자산 총액은 1119만 엔이나 이 중 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자가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315만 엔에 불과하며, 보유 자산이 전무한 경우가 31.5%에 달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남성 중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적고 여성의 경우 이혼 및 사별을 경험한 이가 많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인데, 이는 언더클래스 남성이 결혼해 가족을 형성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말해 준다. 여성의 경우 기혼자는 정의상 파트타임 주부에 포함되므로 모두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지만, 이 중 이혼·사별을 경험한 비율은 연령과 함께 상승해 20대가 11.5%, 30대가 37.5%, 40대가 60.9%, 50대에는 80.0%에 이른다. 결혼 경험 없이 언더클래스로 존속해 온 여성이 상당수 존재하는 한편, 기혼 여성이 이혼·사별을 거쳐 언더클래스로 유입되는 양상을 엿볼 수 있다.

일이나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저조하며 여타 계급과의 격차가 심하다. 또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5개 계급 중 유일하게 50퍼센트를 넘지 못한 38.4%에 그쳤다. 자민당 지지율은 15.3%로 가장 낮았다. 이는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67.9%로 많다는 점에 기인하는 바가 크기는 하나, 자민당 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의 비율이 16.8%로 5개 계급 중 유일하게 자민당 지지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아 자민당에 대한 반감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2015년 SSM 조사에서 자민당 등 5개 정당 각각에 대한 호감도를 0점부터 100점까지 10점 단위 11단계로 매기게 한 결과, 자민당에 대한 호감도가 60점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자본가 계급이 54.4%, 신 중간계급이 37.9%, 노동자 계급이 31.9%, 언더클래스가 23.8%, 구 중간계급이 41.0%로 언더클래스가 가장 낮았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13.8%로 낮았으나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를 지향하는 노동조합의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은 듯, 2005년 SSM 조사 결과인 3.7%와 비교하면 대폭 상승했다. 소득 수준, 생활 수준이 극단적으로 낮고 일반적 의미에서의 가족을 형성, 유지하는 일에서도 배제된 채 상당한 불만을 품은, 현대 일본

의 최하층 계급이다.

(5) 구 중간계급

개인의 연 수입은 303만 엔이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커 남성은 384만 엔, 여성은 174만 엔이다. 여기에는 자본가 계급 여성과 같은 사정이 있는데, 배우자가 있는 여성 구 중간계급 중에는 소득이 전무한 사람이 40.7%, 100만 엔 미만인 사람이 34.7%나 된다. 그 외에도 무응답 수가 상당했는데 남편과 함께 가업을 지탱하는 경우에도 아내가 보수를 전혀 받지 않거나 조금밖에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대 연 수입은 587만 엔으로 정규 노동자 계급에 가까운 수준이지만, 계급 내 격차가 크기 때문에 빈곤율은 17.2%로 높다. 가계 자산은 2917만 엔으로 자본가 계급에 이어 많고, 적어도 자산에 관해서는 중간계급으로서의 내실을 갖추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일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41.4%로 자본가 계급 다음으로 높았으나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아 정규 노동자 계급보다 근소하게 낮았다. 자민당 지지율은 35.5%로 높고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이다. 다만 예전에는 구 중간계급의 자민당 지지율이 자본가 계급과 같은 수준을 보이며 1965년부터 1985년까지의 SSM 조사에서는 거의 6할에 가까웠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상당한 하락을 보임으로써 자본가 계급과의 이질성이 강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다른 정당에 대한 지지율을 보면 민진당이 6.8%, 공산당이 3.3%로 모두 가장 높은 수치다. 전통적인 '중간계급'의 면모를 띠는 한편,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며 쇠퇴를 맞이함으로써 정치 성향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 언더클래스의 비극

언더클래스는 수입, 자산 모두 적고 빈곤율이 높으며 일이나 생활에 큰 불만을 품고 있다. 다른 계급과의 격차가 극심하며 2015년 SSM 조사 데이터에 따른 위 분석을 통해서도 힘든 처지를 헤아릴 수 있다. 그런데 응답자의

〈표 6〉 성장 환경, 불안, 건강 상태와 우울 경향

	자본가 계급	신 중간계급	정규 노동자계급	언더클래스	구 중간계급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	8.3%	18.1%	14.9%	31.9%	15.8%
최종 학교를 중퇴했다	4.5%	3.5%	5.1%	12.0%	8.3%
건강 상태가 나쁘다('좋지 않다', '그다지 좋지 않다'의 합계)	12.6%	11.1%	15.0%	23.2%	18.4%
침울해지는 등의 이유로 일이나 평소 생활이 어려웠다 ('항상', '대체로', '가끔'의 합계)	13.8%	14.1%	16.7%	28.2%	16.1%
우울증이나 기타 마음의 병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7.5%	8.0%	7.2%	20.0%	8.7%
앞으로의 생활에 큰 불안을 느낀다	13.9%	19.6%	29.9%	42.2%	26.4%

출처: 수도권 주민 조사 데이터에 근거해 산출.

성장 환경이나 건강 상태, 우울, 불안 등에 관한 설문을 다수 갖춘 수도권 주민 조사 데이터에 따른 분석을 살펴보면, 그들의 냉혹한 처지가 한층 선명해진다. 몇 가지 지점을 소개해 보자(〈표 6〉).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언더클래스 중에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 비율은 자본가 계급에서 8.3%, 기타 계급에서는 10%대인 데 비해, 언더클래스에서는 무려 31.9%에 달했다. 또 예상한 바와 같이 언더클래스 중에는 최종 학교를 중퇴한 이들이 많다. 그 비율은 12.0%로 기타 계급 평균의 약 2.5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자본가 계급과 신 중간계급에서 낮았고, 정규 노동자 계급과 구 중간계급에서는 약간 상승했으나 언더클래스의 경우 23.2%로 두드러지게 높아진다. 또 '침울해지는 등의 이유로 일이나 평소 생활이 어려웠다'고 답한 사람은 28.2%로 기타 계급의 약 2배에 달한다. 그리고 단순히 침울해지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울증이나 기타 마음의 병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무려 20.0%로 기

타 계급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러한 환경을 고려한다면 놀랍지 않은 결과인데, '앞으로의 생활에 큰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이 42.2%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언더클래스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7. 격차에 대한 의식과 정치의식

계급 구조는 사회적 자원의 불평등한 배분이 이루어지는 기반이며, 따라서 모든 계급은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둘러싸고 대립적인 이해(利害)를 갖는다. 한편 정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 다시 말해 일단 배분된 사회적 자원을 세금이나 사회보험료의 형태로 거두어 다시 배분하는 것이다. 재분배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자원을 많이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적게 소유한 사람에게 재분배하는 것이므로 불평등을 경감하는 효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당연하게도 모든 계급은 사회적 자원의 분배와 정치에 대해 상이한 태도를 취한다. 구체적으로는 유리한 입장에 선 계급은 사회적 자원의 불평등한 배분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재분배에는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처한 계급은 불평등한 분배를 시정하기를 바라며, 재분배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다면 현대 일본에서 각 계급은 격차와 재분배에 대해 실제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 데이터에 근거해 이를 밝혀 보고자 한다.

〈표 7〉은 격차와 소득 재분배에 관한 두 가지 설문에 대한 응답을 계급 별로 살펴본 것이다. 소속 계급에 따라 응답 경향이 명확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일본의 수입 격차는 지나치게 크다'는 항목에 '매우 그렇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신 중간계급에서는 불과 18.1%, 자본가 계급과 정규 노동자 계급에서는 20%대 전반에 머무른 데 비해, 언더클래스에서는 37.0%까지 상승했으며 '약간 그렇다'를 포함하면 88.9%의 비율로 거의 9할

〈표 7〉 격차와 소득 재분배에 관한 계급별 의식

(1) 현재 일본의 수입 격차는 지나치게 크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자본가 계급	22.5%	47.7%	27.9%	1.8%	100.0%
신 중간계급	18.1%	54.0%	26.1%	1.8%	100.0%
정규 노동자 계급	24.4%	56.5%	18.0%	1.1%	100.0%
언더클래스	37.0%	51.9%	10.4%	0.7%	100.0%
구 중간계급	25.4%	50.7%	20.4%	3.5%	100.0%
전체	23.1%	53.8%	21.5%	1.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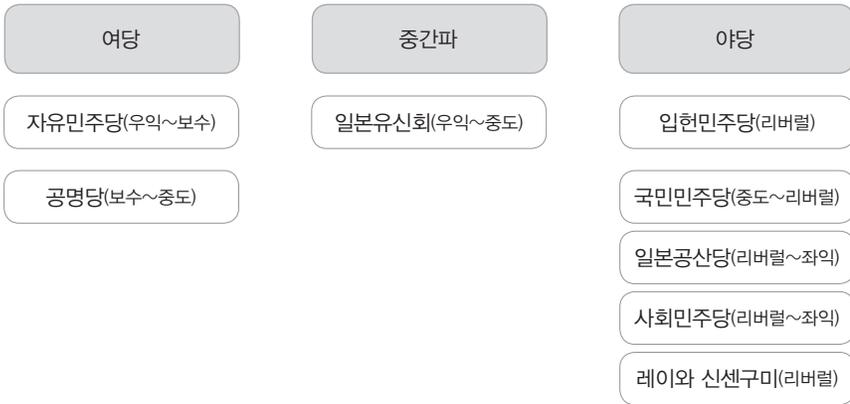
(2) 정부는 풍족한 사람으로부터 걷는 세금을 늘려서라도 혜택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교차표)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자본가 계급	15.7%	38.9%	37.0%	8.3%	100.0%
신 중간계급	15.5%	42.7%	35.2%	6.6%	100.0%
정규 노동자 계급	19.6%	39.3%	35.8%	5.3%	100.0%
언더클래스	27.5%	44.3%	25.2%	3.1%	100.0%
구 중간계급	22.5%	40.8%	31.0%	5.6%	100.0%
전체	18.8%	41.3%	34.1%	5.9%	100.0%

출처: 수도권 주민 조사 데이터에 근거해 산출.

에 달한다. 소득 재분배를 요구하는 ‘정부는 풍족한 사람으로부터 걷는 세금을 늘려서라도 혜택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자본가 계급과 신 중간계급에서는 10%대 후반에 그치고 정규 노동자 계급에서도 20%를 밑도는 데 비해 언더클래스에서는 27.5%로 높았으며, ‘약간 그렇다’를 포함하면 71.8%, 즉 7할 이상이 소득 재분배를 지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격차와 소득 재분배에 관한 의식은 정당 지지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이 점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현대 일본의 정당 시스템을 먼저 짚어 두자. 〈그림 3〉은 일본의 주요 정당을 정권을 구성하는 여당과 이에 대립하는 야당, 그리고 중간파로 나누고, 각각의 정치적 입장을 우익, 보수, 중도,



〈그림 3〉 현대 일본의 정당

주: 2009년 자민당·공명당에서 정권을 탈취한 민주당은 2012년에 정권을 빼앗긴 후 2016년 '민진당'으로 개칭했으나, 2018년 현재의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으로 분열했다. 단 그 과정에서 몇몇 군소 정당이 참여하거나 별도의 그룹을 결성한 복수의 소속 의원이 이탈하기도 했다.

리버럴, 좌익의 다섯 단계로 나타낸 것이다. 자유민주당(자민당)은 1955년 결당한 이래 거의 모든 시기 정권을 획득한 정당으로 정치적 입장이 다른 의원들이 속해 있기는 하지만 모두 우익과 보수 사이에 수렴되며, 근래에는 우익의 세력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자민당과 함께 정권을 이끄는 공명당은 국회 의석수가 자민당, 입헌민주당(立憲民主黨) 다음으로 많다. 창가학회(創価学会)라는 종교단체가 주된 지지 기반이며 정치적 입장은 본래 중도였으나 최근에는 자민당에 타협해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일이 많다.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정권을 잡은 민주당은 야당으로 물러난 뒤 2016년에 민진당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현재 그 상당 부분을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國民民主黨)이 계승하고 있다. 최대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민진당의 많은 부분을 이어받아 2017년 결성한 정당으로 리버럴한 입장을 취한다. 국민민주당은 민진당 가운데 중도적 입장을 가진 정치인들이 독립해 결성한 정당이다. 2016년 수도권 주민 조사 시점에는 여전히 민진당이 최대 야당의 자리를 점하고 있었다. 1922년 결성된 일본공산당은 일본 제국주의 반대에 대한 탄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꺾인 이후, 전후에 이르러 활동을 재개한 정당이다. 1980년대까지는 좌익적, 심지어 공산주의적 경향이 짙었으나 근년에 들어서는 리버럴에 가까운 입장이다. 사회민주당(社會民主黨)

〈표 8〉 격차 및 소득 재분배에 대한 의식과 정당지지

(1) 현재 일본의 수입 격차는 지나치게 크다

	자민당	기타 정당	지지 정당 없음	합계
매우 그렇다	15.8%	16.0%	68.2%	100.0%
약간 그렇다	23.3%	10.8%	65.8%	100.0%
별로 그렇지 않다	34.3%	6.6%	59.1%	100.0%
전혀 그렇지 않다	46.2%	3.8%	50.0%	100.0%
전체	24.0%	11.1%	64.8%	100.0%

(2) 정부는 풍족한 사람으로부터 걷는 세금을 늘려서라도 혜택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복지를 보강해야 한다

	자민당	기타 정당	지지 정당 없음	합계
매우 그렇다	17.5%	20.7%	61.8%	100.0%
약간 그렇다	23.5%	10.3%	66.2%	100.0%
별로 그렇지 않다	28.2%	8.5%	63.2%	100.0%
전혀 그렇지 않다	38.2%	2.2%	59.6%	100.0%
전체	24.6%	11.4%	64.1%	100.0%

출처: 수도권 주민 조사 데이터에 근거해 산출.

은 한때 최대 야당이었던 일본 사회당의 후계 정당으로 현재는 국회에서 차지한 의석 수도 2석에 불과하지만, 일본 전국에 조직이 있어 지방의회 의석수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 레이와 신센구미(れいわ新選組)는 2019년에 결성된 새로운 정당으로 국회에서 5석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유신회(日本維新の会)는 오사카부를 중심으로 하는 간사이 지역을 지지 기반으로 삼는 지방 정당인데, 타 지역에서도 일정한 지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차지한 의석수도 공명당 다음으로 많다. 소속 의원의 정치적 입장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나 우익에서 중도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여당은 아니지만 여당에서 제출한 법안 등에 찬성하는 경우가 많은 중도파 정당이다.

〈표 8〉은 격차 및 소득 재분배에 관한 의식과 정당 지지 간 관계를 살핀 것이다. 근래의 일본에서는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파층의 비율이 높고, 특히 자민당이 아닌 정당을 일관되게 지지하는 사람의 비율이 낮다. 따라서

〈표 9〉 소속 계급과 지지 정당

	자민당	기타 정당	지지 정당 없음	합계
자본가 계급	38.6%	6.9%	54.5%	100.0%
신 중간계급	24.4%	8.6%	67.0%	100.0%
정규 노동자 계급	23.0%	11.8%	65.2%	100.0%
언더클래스	10.7%	13.1%	76.2%	100.0%
구 중간계급	26.7%	12.6%	60.7%	100.0%
전체	24.0%	10.4%	65.6%	100.0%

출처: 수도권 주민 조사 데이터에 근거해 산출.

자민당 외의 정당에 대해서는 합산한 값을 표시했다.

한눈에 알 수 있듯이 격차와 소득 재분배에 대한 의식은 정당 지지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현재 일본의 수입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소득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민당 외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짙었고, 이 같은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다.

〈표 7〉과 〈표 8〉의 결과를 살펴볼 때 당연히 소속 계급과 지지 정당 역시 유관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를 나타낸 것이 〈표 9〉다. 예상한 대로 정당 지지는 소속 계급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자민당 지지율은 자본가 계급에서는 38.6%로 높고 신 중간계급, 정규 노동자 계급, 구 중간계급에서는 25% 전후인 데에 비해, 언더클래스에서는 10.7%에 불과하다.¹² 기타 정당 지지율은 자본가 계급의 경우 겨우 6.9%인데 비해 언더클래스에서는 13.1%로 높아진다. 기타 정당 지지율이 자민당 지지율을 상회하는 계급은 언더클래스뿐이다. 언더클래스의 지지 정당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시 빈곤층 비율이 높은 창가학회 회원을 강고한 지지 기반으로 삼는 공명당이 6.9%로 비교적 많고, 공산당 3.5%, 민진당 3.0%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하면 언더클래스의 특징은 자민당 지지율이 여타 계

12 〈표 5〉에 비해 전체적으로 자민당 지지율이 낮아진 것은 이 조사가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급에 비해 크게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기타 정당 지지율은 정규 노동자 계급이나 구 중간계급과 각각 15%, 0.5%의 차이밖에 보이지 않으며 무당파층이 76.2%로 매우 많다는 점에 있다. 즉 현 상태로는 격차의 축소와 소득 재분배를 바라는 언더클래스의 요구를 그 밖의 정당들이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언더클래스를 기권으로 이끌고, 정치적으로 무력한 존재에 머무르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할 수 있다.

8. 정치의식의 세 유형과 자민당 지배 구조

이상에서 살펴본 격차와 소득 재분배에 관한 의식은 그 밖의 다양한 정치의식, 또 이와 관련한 여러 사회의식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의식의 차이는 소속 계급과 결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계급 소속을 하나의 기초로 삼으며 사람들을 상이한 정치적 입장으로 구성한다.

전후 일본에서 일관되게 중대한 문제였던 정치적 대립축은 일본국 헌법을 견지하며 평화주의를 관철할 것인가, 혹은 헌법을 개정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지향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 대립은 아시아·태평양 전쟁 시 일본의 전쟁 책임을 인정하고 중국 및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중시하는가, 혹은 침략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침략의 책임을 묻는 중국과 한국에 반발할 것인가 하는 입장의 차이와도 결부된다. 그리고 근년에는 이에 더해 격차 확대와 소득 재분배에 대한 자세가 중요한 대립축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정치의식의 클러스터 분석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시작해 보자. 수도권 주민 조사에는 중국·한국의 일본 비판, 헌법 제9조 개정, 일본 최남단에 위치한 섬 오키나와에 집

중된 미군기지,¹³ 경제 관련 규제 완화 등에 대한 태도, 즉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의식을 묻는 설문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개개 설문에 대한 응답에도 흥미로운 점이 많지만, 여기서는 다양한 설문에 대한 응답을 동시에 사용하는 클러스터 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클러스터 분석은 여러 설문에 대한 응답을 종합해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응답자를 차례차례 모아 나감으로써, 최종적으로 서너 개에서 10개 정도의 그룹(이를 클러스터라 부른다)으로 정리하는 분석 방법이다. 클러스터 수가 많아지면 극단적인 응답자들이 모인 극히 적은 인원 수의 클러스터가 여럿 발생하므로, 클러스터 수를 3개로 한정할 결과 매우 명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를 제시한 것이 <표 10>이다. 표의 맨 앞에 표기한 것은 각 클러스터가 응답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다. 아래의 ①부터 ⑧은 광의의 정치의식, 그다음에 제시된 A부터 D는 각 정당과 아베(安倍) 전 수상에 대한 지지, 마지막 1에서 7까지는 각각의 기본 속성과 계층 귀속 의식이다.

클러스터 1은 실로 개성적이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2%로 작는데 응답 경향이 다른 두 클러스터와는 전혀 다르다. 소득 재분배를 지지하는 경향은 약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생활이 곤란한 사람이 있다면 국가가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과 20.1%에 그쳤다. 또 66.3%가 ‘중국인·한국인은 일본에 대해 지나치게 나쁘게 말한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배외주의적 경향이 현저히 나타난다. ‘일본국 헌법을 개정해 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려 75.1%를 차지했으며, ‘오키나와에 미군기지가 집중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85.2%나 되는 이들이 ‘그렇다’고 답했다. ‘경제에 대한 정부 규제는 가능한 적은 편이 좋다’는 항목을 절반에 가까운 46.3%가 지지하는 데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엿보이는데, ‘전쟁은 인간 본능에 따른 것이므로 없앨 수 없을 것이다’에 동의하는 사람이 46.7%로 많다는 점에서는 우파적 nihil

13 오키나와는 일본이 독립을 회복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에도 미국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그 사이 많은 미군기지가 설치되었다. 1972년 일본에 반환되었으나 현재까지 다수의 미군 시설이 존재하는데 그 면적은 일본 내 전체 미군 시설의 70%에 해당한다.

〈표 10〉 정치의식으로 추출한 3 클러스터

	클러스터 1	클러스터 2	클러스터 3	
	신자유주의 우익	온건 보수	리버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10.2%	38.9%	50.9%	
① 현재 일본의 수입 격차는 지나치게 크다	57.4%	71.6%	88.0%	
② 정부는 풍족한 사람으로부터 걷는 세금을 늘려서라도 혜택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44.4%	54.6%	72.5%	
③ 어떤 이유에서든 생활이 곤란한 사람이 있다면 국가가 보살펴야 한다	20.1%	39.9%	54.5%	
④ 중국인·한국인은 일본에 대해 지나치게 나쁘게 말한다	66.3%	37.4%	31.8%	
⑤ 일본국 헌법을 개정해 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좋다	75.1%	16.3%	1.0%	
⑥ 오키나와에 미군기지가 집중되어도 어쩔 수 없다	85.2%	21.6%	1.4%	
⑦ 경제에 대한 정부 규제는 가능한 한 적은 편이 좋다	46.3%	29.2%	27.1%	
⑧ 전쟁은 인간 본능에 따른 것이므로 없앨 수 없을 것이다	46.7%	24.7%	16.7%	
A. 자민당 지지율	63.2%	32.4%	15.2%	
B. 기타 정당 지지율	3.7%	10.6%	14.9%	
C. 지지 정당 없음	33.1%	56.9%	69.9%	
D. 아베 신조(安倍晋三)에게 호의적이다	68.7%	39.6%	20.5%	
1. 남성 비율	77.5%	57.6%	46.8%	
2. 대졸자 비율	73.4%	50.6%	43.9%	
3. 평균 연령	47.1	47.0	48.6	
4. 평균 세대 연 수입(만 엔)	840	790	736	
5. 총자산 평균액(만 엔)	4921	3109	2661	
6. 각 계급 구성비	자본가 계급	8.9%	7.7%	8.2%
	신 중간계급	48.9%	36.3%	34.6%
	정규 노동자 계급	20.0%	32.3%	32.0%
	언더클래스	8.9%	14.3%	15.7%
	구 중간계급	13.3%	9.5%	9.5%
7. 자신은 '평균 이상이다'	51.6%	36.0%	27.7%	

출처: 2016년 수도권 조사 데이터에 근거해 산출.

주: 클러스터 분석의 기초가 된 설문은 ①~⑧을 포함한 10문항으로, 이를 사전에 5개 척도로 정리해 투입했다. ①~③은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의 합계. ④~⑧은 '그렇다'의 비율. D는 '호의적이다', '굳이 고르자면 호의적이다'의 합계. 7은 '상', '중의 상', '중의 하', '하의 상', '하의 하' 가운데 '상', '중의 상'의 합계.

리즘도 감지할 수 있다.

클러스터 1의 정반대에 있는 것은 클러스터 3이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9%로 약 절반에 해당한다. 거의 9할이 현재 일본의 경제 격차는 지나치게 크다고 생각했으며, 7할 이상이 소득 재분배를 지지했고, ‘어떤 이유에서든 생활이 곤란한 사람이 있다면 국가가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반을 넘었다. ‘중국인·한국인은 일본에 대해 지나치게 나쁘게 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3 이하에 그쳤다. 그리고 ‘일본국 헌법을 개정해 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겨우 1.0%, ‘오키나와에 미군기지가 집중되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1.4%에 지나지 않았다. ‘경제에 대한 정부 규제는 가능한 한 적은 편이 좋다’는 항목을 지지하는 사람은 27.1%에 그쳤으며, ‘전쟁은 인간 본능에 따른 것이므로 없앨 수 없을 것이다’에 동의하는 사람은 16.7%에 불과했다.

클러스터 2는 중간파로 전체에서 점하는 비율은 38.9%다. 소득 재분배를 지지하는 사람은 54.6%로 중간적이기는 하지만, 굳이 한쪽을 고르자면 클러스터 1에 가깝다. 반면 ‘중국인·한국인은 일본에 대해 지나치게 나쁘게 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7.4%로 클러스터 3과 큰 차이가 없다. ‘일본국 헌법을 개정해 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6.3%, ‘오키나와에 미군기지가 집중되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21.6%로 많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각 항목에 대해 58.1%, 63.7%로 과반수가 ‘어느 쪽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것에서 이 클러스터의 중간파적 성격이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또 ‘경제에 대한 정부 규제는 가능한 한 적은 편이 좋다’는 항목을 지지하는 사람은 29.2%로 클러스터 3과 거의 동일해 신자유주의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다르지 않다.

클러스터 1은 배외주의적이고 군을 중시하는 우파의 전통적 입장과 신자유주의라는 현대적 경제 이데올로기를 겸비한 이들로 ‘신자유주의 우익’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이에 비해 클러스터 2는 신자유주의는 거부하지만 소득 재분배까지 깊숙이 다다르지는 않은, 배외주의적이지는 않지만 헌법이나 미군에 관해서는 입장을 보류하는 이들로 ‘온건 보수’라 부를 수 있

겠다. 그리고 클러스터 3은 '리버럴'이라 부르기에 적합하다. 이것이 정치의 식으로 살펴본 일본인의 3가지 유형이다.

2) 정당 지지 구조

정당과 아베 전 수상에 대한 지지로 시선을 옮겨 보자. '신자유주의 우익'의 자민당 지지율은 무려 63.2%나 된다. 기타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3.7%로 거의 전무하며 무당파조차 약 1/3에 그친다. 따라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민당 지지자의 1/4을 점하고 있다. 가히 절대적인 자민당의 지지 기반이다. 아베 전 수상에게 호의적인 사람도 68.7%로 7할에 가깝다. '온건 보수'의 자민당 지지율은 32.4%로 높지는 않으나 기타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10.6%에 불과해 자민당 색이 짙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리버럴'은 어떠한가. 당연하게도 자민당 지지율은 15.2%로 낮다. 그러나 기타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14.9%로 자민당과 거의 같은 수준에 그치며 나머지 7할이 무당파에 속한다. ①에서 ⑧에 이르는 응답의 경향을 살펴보면 옹당 야당 지지자가 될 법한 이들로부터 야당은 7분의 1 정도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다. 상세한 지지율은 민진당 6.7%, 공명당 3.8%, 공산당 3.4%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0>의 아랫부분을 보자. '신자유주의 우익'이란 어떤 이들인가. 우선 남성 비율이 77.5%로 매우 높아 '리버럴'의 과반수가 여성인 것과 대조적이다. 대졸자 비율은 73.4%에 달해 다른 두 클러스터를 크게 상회한다. 평균 세대 연 수입은 840만 엔으로 높으며 이는 '온건 보수'보다 50만 엔, '리버럴'보다 100만 엔 이상 높은 수치다. 총 자산은 4921만 엔으로 역시 다른 두 클러스터와 큰 격차를 보인다. 연령에서는 다른 클러스터들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상위 계급에 속하는 이들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소속 계급을 살펴보면 '신자유주의 우익'에서는 신 중간계급이 48.9%로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자본가 계급도 8.9%로 다른 두 클러스터보다 많다. 그리고 과반수가 자신은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비교적 윤택한 이들이며 자신들의 풍족함을 자각하는 사람들이다. 이에 비해 '온건 보수'와 '리

버럴'은 신 중간계급의 비율이 비교적 낮고 정규 노동자 계급과 언더클래스의 비율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 자신을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3할 전후에 그쳤다.

'신자유주의 우익'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할 정도, 자민당 전체 지지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1/4을 넘는 정도인데, 특유의 정치의식과 정당 지지 경향을 고려할 때 선거에서의 투표율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근래 일본의 국정 선거 투표율이 5할 정도에 그치므로 그 영향력은 크다. 따라서 자민당은 본래 최대의 지지 기반인 '온건 보수'보다도 '신자유주의 우익'이 선호하는 정책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정책이야말로 격차 확대의 용인과 소득 재분배의 거부,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 자위대와 미군의 일체화와 헌법 개정에 따른 군대 보유, 그리고 한국과 중국을 적대시하는 외교 정책이다.

9. 격차 확대와 침체된 일본 경제, 그리고 일본이 나아갈 길

일본 경제의 침체는 지속되고 있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GDP 성장률은 저조한 상태를 지키고 있으며 GDP 총액이 여전히 세계 3위라고는 하나 미국의 약 1/4, 중국의 약 1/3에 그친다. 인구가 많은 일본의 1인당 GDP는 낮은 수준을 보이는데, 일본이 처한 상황은 이미 문자 그대로의 선진국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매력 평가에 따른 1인당 GDP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은 4만 1,637달러로 세계 28위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이미 한국(4만 4,292달러, 24위)에 따라잡힌 수치로 G7 국가 중 일본보다 낮은 곳은 이탈리아(4만 66달러, 31위)뿐이다.¹⁴

이제까지 많은 연구들이 경제 격차는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왔다. 널리 알려진 것은 OECD가 공표한 분석 결과로, 이에 따

14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를 참고.

르면 격차 확대는 여러 선진국에서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1990년에서 2010년 사이 GDP 성장률이 17.5%였으나 경제 격차의 확대에 따라 이 성장률은 5.6% 떨어졌으며, 그러한 방해가 없었더라면 23.1%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 격차 확대로 인해 하락한 GDP 성장률은 영국에서는 8.6%, 미국에서는 6.0%, 독일에서는 5.7%, 이탈리아에서는 6.6%로 추정된다.¹⁵

경제 격차의 확대가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이유로는 몇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OECD 보고서가 중시하는 것은 심화되는 격차로 인해 저소득 세대 자녀들의 진학이 불가능해짐으로써 인적 자본의 형성이 저해되는 일이다.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은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는 일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비 성향, 즉 가처분 소득 중 소비에 할당된 부분의 비율은 저소득 세대에서 높고 고소득 세대에서는 낮다. 여기서 경제 격차가 확대되며 저소득 세대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 고소득 세대에서는 증가했다면 필연적으로 소비는 줄어들게 된다. 더욱이 일본에서는 비정규 고용의 확대로 인해 언더클래스가 늘어남으로써 결혼할 수 없는 젊은이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가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자고령화(少子高齢化)이며 이는 노동력 감소를 초래,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어렵게 할 것이다.

대다수 일본인들은 이제껏 일본은 '아시아의 유일한 선진국'이라 여기며 여타 아시아 국가들을 낙후된 나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오늘날에도 그다지 다르지 않다. 시험 삼아 곁에 있는 일본인에게 일본의 GDP는 중국의 1/3이며, 1인당 GDP는 한국보다 낮다는 사실을 알려줘 보라. 설령 '신자유주의 우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일본인이 분노하며 중국과 한국의 경제 통계는 믿을 수 없다는 등 대꾸할 가능성은 낮지 않다.

많은 일본인들은 '1억총중류'의 꿈에서 깨어나 일본은 경제 격차가 심하고, 빈곤층이 많은 나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다음으로 인정해

15 Federico Cingano, "Trends in Income Inequality and Its Impact on Economic Growth," OECD, 2014.

야 할 것은 이미 일본은 ‘아시아의 유일한 선진국’ 따위가 아니라, 아시아를 구성하는 보통의 국가 중 하나라는 것이다. 그때서야 분명 일본인, 적어도 그 대다수는 경제 격차를 시정할 필요성을 인정하게 될 것이며,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필요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 이 글은 일본어로 작성되었으며 손혜경(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 · 번역가)이 번역했다.

투고일자: 2021. 11. 2. | 심사완료일자: 2021. 12. 23. | 게재확정일자: 2021. 12. 26.

姫野カオルコ, 『彼女は頭が悪いから』, 文藝春秋, 2018.

福沢諭吉, 『学問のすすめ』, 岩波書店, 1942.

二葉亭四迷, 『浮雲』, 岩波文庫, 1941.

三島由紀夫, 『青の時代』, 新潮社, 1950.

三島由紀夫, 『天人五衰』, 新潮社, 1971.

三田紀房, 『ドラゴン桜 フルカラー 版』 1巻, kindle版, コルク, 전자책, 2021.

村田さやか, 『コンビニ人間』, 文藝春秋, 2016.

山田昌弘, 『希望格差社会』, ちくま文庫, 2007.

上野千鶴子, 『平成31年度東京大学学部入学式 祝辞』, 2019. 4. 16. 도쿄대학홈페이지(최종검색일: 2021. 10. 25.)

https://www.u-tokyo.ac.jp/ja/about/president/b_message31_03.html(최종검색일: 2021. 10. 25.).

Utaisaku-web, 『東大入試足切り点・合格最低点推移』, <https://today.info/juken/data/>(최종검색일: 2021. 11. 30.).

언더클래스의 출현과 새로운 계급사회 | 하시모토 겐지

加藤圭木, 『朝鮮植民地支配と公害: 戦時期の黄海道鳳山郡を中心に』, 『史海』 61巻, 2014.

橋本健二, 『〈格差〉と〈階級〉の戦後史』, 河出書房新社, 2020.

厚生労働省, 『職業安定業務統計』.

厚生労働省, 『労働力調査』.

内閣府, 『経済財政白書』, 2000.

Cingano, Federico, *Trends in Income Inequality and Its Impact on Economic Growth*, OECD, 2014.

Hashimoto, K., "Transformation of the class structure in contemporary Japan," *The Japanese Political Economy*, 2021.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

Poulantzas, N., *Les Classes Sociales dans le Capitalisme Aujourd'hui*, Seuil, Fernbach, D.(tr.), 1978, *Classes in Contemporary Capitalism*, Verso, 1974.

Roemer, John E., *A General Theory of Exploitation and Cl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Wright, E. O., *Class, Crisis and the State*, New Left Books, 1978.

Wright, E. O., *Class Structure and Income Determination*, Academic Press, 1979.

일본의 교육격차와 사회이동: 한일비교의 가능성 탐색을 위한 연구사 리뷰 | 정인관

김미란, 『일본의 사회변동과 교육격차: 격차 사회론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0권 2호, 2010.

다치바나키 도시야키, 『일본의 경제 격차』, 소화, 2001.

박현준·정인관, 『20년 간의 세대 간 사회이동의 변화: 30~49세 두 남성 코호트 비교 분석』, 『한국사회학』 55권 3호.

사토 도시키, 『불평등 사회, 일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4.

양준호, 『'격차사회' 일본과 빈곤층 재생산』, 『일본비평』 4호, 2011.

정인관·최성수·황선재·최윤. 2020. 『한국의 세대 간 사회이동과 교육 불평등: 2000년대 이후 경험』

히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고등학교 간의 차이(학교 간 분산)가 크다는 점은 학교의 서열화된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주제어: 교육격차, 교육개혁, 중등교육제도, 중고일관교육, 고등학교 다양화 정책

현대일본 문화 속의 ‘학력 사회’ 표상과 분단 | 남상욱

이 글은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된 일본에서 ‘학력 사회’는 문학 및 만화 등의 미디어에서 어떻게 표상되고, 그 표상의 배후에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이 글은 만화 <드래곤 사쿠라>(2003~7) 속의 외부자에 의한 학교 개혁과 그 방법으로서 도쿄대 진학 특별반이라는 허구적 설정이 2000년대 일본을 몰아닥친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사립학교의 재정적 위기감, 학력 저하, 그리고 신자유주의로 인한 고용의 불안정성을 컨텍스트로 활용함으로써 리얼리티를 확보해 가는 과정을 추적한다. 이어서 실제 있었던 사건을 제재로 한 『그 여자애는 머리가 나쁘니까』(2018)를 통해서 고교 편차치가 대학 진학 이후의 대학생의 삶을 여전히 구속하고, 능력주의를 정당화하는 양상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도쿄대라는 시니피앙이, 무한 경쟁을 통해 능력을 증명하길 원하는 사회의 피로감을 완화하는 완충제적 역할로서 대중들에게 소비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자 한다.

한편 이 시기에는 학력 편차가 쓸모없어진 세계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이 그려진 문학작품이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들 작품은 학력 사회 표상에서도 분단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학력 세습을 비판하며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사회 불균형의 해소 노력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깊은 불평등이 존재함을 드러낸다. 이는 교육 기회 확대만으로서 해소될 수 없는 인간의 취약성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학력 불평등의 문제에 접근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주제어: 학력 사회, 능력주의, 드래곤사쿠라, 그 여자애는 머리가 나쁘니까, 편차, 도쿄대, 표상, 분단

언더클래스의 출현과 새로운 계급사회 | 하시모토 겐지

일본의 경제 격차는 1980년대 이후 확대되는데, 21세기에 들어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며 ‘격차사회’는 유행어가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격차 확대의 원인과 사회적 귀결을 계급론적 접근에 의해 밝히고자 했다. 일반적으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 구조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위치하는 자본가 계급, 신 중간계급, 노동자 계급과 단순 상품 생산에 위치하는 구 중간계급, 이 4계급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근래 들어 노동자 계급 내부의 격차가 확대되고, 그 최하층에 빈곤한 비정규 고용 노동자가 대량으로 집적되었다. 이들을 정규 고용 노동자 계급과 구별해 ‘언더클래스’라 부를 수 있다. 언더클래스는 일이나 생활에 큰 불만을 품고 있으며 건강상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고, 미혼이거나 이혼·사별을 경험한 이들이 대다수다.

격차 확대는 사람들의 사회의식에 도 변화를 초래하며 정치의식의 양극화를 진행시키고 있다. 사회 조사 데이터의 클러스터 분석을 통해 현대 일본에는 3가지 정치의식 유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 첫째가 격차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고 소득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일본의 군비 증강에 부정적인 리버럴파, 둘째가 격차 확대를 용인하고 소득 재분배를 부정하며 일본국 헌법 개정에 따른 일본군의 부활을 요구하는 신자유주의 우익, 마지막인 셋째가 중간적인 온건 보수파. 경제 격차를 확대시키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 군비 증강, 중국과 한국을 적대시하는 외교 정책을 시행해 온 자민당 정권은 신자유주의 우익의 지지 위에 존립해 왔다. 경제 격차의 확대는 일본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고, 언더클래스의 확대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주제어: 격차사회, 격차 확대, 계급 구조, 언더클래스, 정치의식, 신자유주의

일본의 교육격차와 사회이동: 한일비교의 가능성 탐색을 위한 연구사 리뷰 | 정인관

이 논문은 일본사회의 교육격차와 세대 간 사회이동을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정리하고 이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결과를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일본의 교육기회 불평등이 중고등교육의 급격한 팽창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오늘날 이러한 경향이 더욱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을 지적하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교육격차가 가져온 결과와 관련하여 일본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교육수준과 직업 사이의 상관성은 높지 않은 편이었으나 장기불황을 거치며 대학 졸업자와 저학력자 사이의 격차는 커지는 추세이다. 세대 간 사회이동의 경우 일본 사회는 높은 절대적 이동률과 안정적인 상대적 이동률을 보이고 있었다. 한국과 일본은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속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험이 한국보다 시기적으로 빠른 편이다. 두 국가의 비교를 통해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불평등과 사회이동 문제들에 대한 해답의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와 관련하여 비교연구 수행 시 필요한 한일 양국의 자료를 검토하고 두 국가에서 새롭게 살펴봐야 할 몇 가지 질문들을 제시해 본다.

주제어: 일본, 사회이동, 교육격차, 교육기회 불평등, 사회이동과 사회계층의 전국조사(SSM)

연구논단

1880년대 일본 '문명개화'론의 행방:

사회진화론과 유니테리언리즘을 대하는 두 가지 사례 | 이새봄

본 논문은 메이지 초기 일본인의 서양 이해를 주도했던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 1832~1891)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가 메이지 10년대(1877~1886) 이후에 고민한 '문명개화'의 방법론에 대한 고찰한다. 그중 1880년대 후반에 그들이 공통적으로 기대를 걸었던 유니테리언리즘(Unitarianism)의 보급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기대는 서양의 종교를 '문명개화' 실현의 방법으로 여기는 그들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런데 해당 시기는 일본 지식인 사회에 진화론이 본격적으로 유입되어 정치가들부터 종교인까지 수많은 엘리트층 인사들이 사회진화론의 열풍에 휩쓸렸다. 하지만 유니테리언리즘에 적극적인 동조를 보인 본 논문의 주인공 두 사람은 사회진화론에는 거의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나카무라나 후쿠자와가 사회진화론에는 거리를 두고 유니테리언리즘의 가르침에는 적극적으로 다가간다는 사실은, 이들의 '문명개화' 이해의 표리를 이루는 두 측면이라고 본 논문은 판단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데에는 그들의 학문적·사상적 기반에 있던 유학의 논리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동했다고 본다. 더 나아가 이들과 같은 세대의 이른바 '일신이생'(一身二生)의 경험을 공유하는 지식인들 중에서 1890년대 이후 일본의 국체론(國體論)의 논리를 수용하지 않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는 데에도, 그들 사고의 기저에 있는 유학의 논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우선 나카무라나 후쿠자와와 같은 세대의 지식인들

but also represent of deep inequality that cannot be resolved only by efforts to resolve social imbalances through expand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This suggests the need to approach the problem of educational inequality while looking at human vulnerabilities that cannot be solved only by expand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 **Keywords:** *gakureki shakai*, meritocracy, dragon Sakura, *Kanozoha-atamaga-waruikara*, Deviation in academic background, representation of University of Tokyo, division

Emerging Underclass and the New Class Society in Contemporary Japan

| HASHIMOTO Kenji

In Japan, economic disparity has rapidly expanded since the 1980s. A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the fact of expanding disparity had become widely recognized, and “disparity society” became a buzzword. This article clarifies the causes and social consequences of this expanding disparity by means of the class theory approach. Generally, the class structure of contemporary capitalist society is considered to consist of four classes: the capitalist class, the new middle class and the working class, which are located in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and the old middle class, which is located in the simple commodity production. However, recently the disparity within the working class has expanded, and at the bottom of the class there has been a massive accumulation of poor non-regular workers. We can distinguish these people from the regular working class and call them the underclass. Most of the underclass are dissatisfied with their jobs and lives, and often have health problems, many of whom are unmarried, divorced or widowed.

Expanding disparities are also changing people’s social consciousness, and their political attitudes are becoming more polarized. A cluster analysis of social survey data shows that there are three types of political attitudes among contemporary Japanese people. Firstly, liberals, who believe that expanding disparity is a serious problem and that income redistribution is necessary, and who are negative towards Japan’s military expansion; secondly, the neo-liberal rightists, who accept expanding disparity, reject income redistribution, and call for the revival of the Japanese military through modification to the Japanese Constitution; and thirdly, moderate conservatives, who are between the two. The LDP government, with its neoliberal economic policies that have expanded economic disparity, its military expansion and hostile foreign policy toward China and South Korea, has been supported by the neo-liberal rightists. And the expanding economic disparity caused by neo-liberalism has prevented the growth of the Japanese economy and created many problems, including the growing underclass.

• **Keywords:** disparity society, expansion of disparity, class structure, underclass, political consciousness, neo-liberalism